

'항일혁명문학'에 집중적 관심 부여

북한에서의 근대문학 연구

權寧珉

서울대 교수 · 국문학

북한문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문학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심포지움이 월간 「文學思想」지령 200호 기념으로 5월 25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에서 열렸다. 평론가·시인·소설가 등 문학인들과 관심있는 일반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심포지움에서는 「북한문학의 특성과 남북문화 교류의 전망」(金烈圭), 「북한에서의 근대문학 연구」(權寧珉),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적 문예이론」(金允植), 「북한의 창작문학」(任軒永) 등의 주제발표와 田英泰·李炯基·李善榮·李浩哲·金善鶴·金相泰·金源一·李昇薰씨가 참여한 토론회가 있었다.

다음에 권영민·임현영씨의 발표요지를 소개한다.

북한문학사의 전환점은 1926년

북한의 문학연구는 해방 직후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사회주의 예술미학의 확립을 목표로 하는 당의 문예정책과 사회과학 연구방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문학연구의 경우, '김일성 종합대학'의 개교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의 개설(1952)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 그 결과로 「조선문학사」(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편, 1959)가 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주의 이념의 확립을 위한 연구작업은 196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 무렵부터 당의 문예정책은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주체의 문예이론'을 기조로 하여 그 창작적 구현과 함께 문학연구의 방법론적 확립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1960년대 이전의 분산적이고도 개별적인 연구사업을 조직화하고 집단화하기 위해 기존의 '과학원'을 '사회과학원'으로 확대하고, 문학연구소를 언어연구소와 별개의 독립 연구소로 만들게 된다. 이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에서 펴낸 「조선문학사」(전5권)는 분단 이후 북한에서 이루어진 문학연구의 성과를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집대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될 북한의 근대문학 연구는 바로 이 「조선문학사」의 제2권과 제3권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조선문학사」의 내용 가운데에서 이 글의



권영민씨

검토 대상이 되는 근대문학 부분은 19세기 말부터 1945년까지의 문학이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근대문학은 이러한 시대구분과는 달리 19세기 말에서 1925년까지로 그 범위가 한정된다. 이러한 구분은 「조선문학사」의 시대구분 방법과 편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조선문학사」전5권의 내용은 제3권에 해당하는 1926~1945년 사이의 항일무장투쟁시기의 혁명문예를 중심으로 하여, 제1권에서는 원시·고대·중세문학을 19세기 중반까지로 묶었고, 제2권에서는 19세기 말부터 1925년까지 김일성의 등장 이전의 문학을 근대문학으로 묶어 놓고 있다. 그러므로 1926년 이후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루어진 이른바 항일혁명문학예술은 해방 이후 그러한 혁명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오늘의 북한문학과 함께 현대문학의 범주 속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결국 김일성의 항일혁명문학예술의 출현이 문학사의 전환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이후의 문학이 서술적인 확대를 보인다는 것이다.

「조선문학사」의 19세기 말부터 1945년 해방 이전까지의 시대구분을 보면, ①19세기 초~20세기 초 ②1910~25년 ③1926~45년 등으로 구분돼 있다. ①에서는 자본주의 열강의 침략을 반대하는 투쟁과 갑오농민전쟁을 반영한 문학, 반일의병투쟁을 반영한 문학, 애국문화운동에 이바지한 문학, 그리고 새로운 문학으로 신소설·창가 등을 다루고 있다. ②에서는 논의되고 있는 것은 식민지 통치하의 사회현실과 무산계급의 이익을 반영한 문학, 김형직·강반석의 혁명적 문학 등이다. ③에는 김일성의 지도 밑에 항일혁명투쟁 과정에서 창조된

북한의 근대문학 연구자들은

1930년대 프로문학운동과 그 후의

진보적 문학운동을 모두

김일성의 항일 혁명투쟁의 영향 아래

성립된 것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항일혁명문학에 대한 판단이

북한문학을 이해하는 관건이다.

혁명적 문학예술, 항일혁명투쟁의 영향 밑에서 발전한 진보적 문학 등이 다루어져 있다.

이같은 문학사의 시대구분과 설정범위를 보면, 김일성의 항일혁명투쟁과 그 지도력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는 항일혁명문학에 집중적인 관심이 부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개화기의 애국문화운동에서 식민지 시대의 부르주아 계몽문학, 비판적 사실주의 문학, 프롤레타리아 문학이 단계적으로 항일혁명문학이라는 전환기적 정점을 향해 발전해 온 것처럼 서술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1930년대 프로문학운동과 그 후의 진보적 문학운동을 모두 김일성의 항일혁명투쟁의 영향 아래 성립된 것으로 설명하면서, 혁명적 문학의 전통이 역사발전의 새로운 국면과 함께 확립되고 있다고 규정한 것은 문학사 서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대상 작가와 작품 지극히 제한돼

북한의 「조선문학사」에서 근대문학의 발전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김일성의 항일혁명문학이다. 그의 주체적 문예사상이란 것도 혁명적 문예전통의 기본핵을 이루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성황당」 「꽃파는 처녀」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조선의 노래」 등은 모두 혁명투쟁의 힘있는 무기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들 문학의 혁명적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 오늘의 북한문학의 최대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김일성의 항일혁명문학과 김형직·강반석의 혁명적 문학이라는 것을 제외할 경우, 「조선문학사」의 근대문학 영역은 그 범위와 대상이 지극히 제한된다.

소설의 경우 신채호·안국선·이해조·김교제·양건식·현진건·나도향·이익상·송순일·최서해·조명희·유완희·이기영·송

영·이북명·이동규·엄홍섭·윤기정·강경애·한인택·현경준·박승극 등의 작품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다루어져 있다. 시에 있어서는 유인석·김택영·황현(이상 漢詩)·이병욱·조운·김석송·강경애·조명희·이상화·유완희·김창술·이찬·박아지·송순일·권환·박세영, 희곡에 있어서는 진우촌·김수산·조명희·김영팔·송영·이기영 등 몇몇 작가들로 제한돼 있다.

이같은 연구대상 작가와 작품의 선정은 북한의 문학사 연구의 방향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그 혁명적 이념성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문학의 형식과 주제와 내용이 인민성·계급성 등과 연관되는 집단적 요소를 갖춘 것을 중시한다. 앞에 예시한 작가의 작품 이외에도 많은 집단민요가 중요한 문학사의 자료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또한 작가의 사상적 성향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앞의 작가들은 상당수가 식민지 시대의 계급문학운동에 가담하여 그 문학적 실천에 힘쓴 사람들이다. 계급문학운동의 조직과 연관을 갖고 있지 않은 작가의 경우에는 민족주의적 사상과 비판의식이 강하며, 해방 이전에 사망한 사람에 국한된다. 그런데, 해방 이후 월북한 많은 문인들 가운데, 문단 숙청과정에서 제거된 사람들이 모두 제외되고 있다. 특히 한설야의 존재가 거의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은 특이한 일이다(86년에 나온 「조선문학개관」에는 등장).

이상을 종합해볼 때 1926년은 북한 문학사의 새로운 전환기적 기점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해방 이후 오늘의 문학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문학은 항일혁명문학의 전통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최대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므로 항일혁명문학에 대한 판단이 북한의 문학사 연구와 오늘의 북한문학을 이해하는 관건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남북문학의 이질화현상도 바로 여기서부터 연유되는 것임을 생각한다면, 항일혁명문학이 가장 문제적인 영역에 가로놓여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